

## 지역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재투자법의 필요성

###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수도권 경제력 집중

#### 고착화된 수도권 비대화

- 전체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경제력 집중은 민선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음
- 1기민선 자치가 시작된 1995년의 수도권 인구 집중 및 경제력 집중은 각각 45.1%와 48.2%였으나, 20년 후인 2015년에는 각각 49.4%와 49.4%로 수도권 비대화가 오히려 심화되었음

■ [표 1] 수도권 비대화 추이(1995년~2015년) ■

(단위 : 천명, 개, 십억원)

구분	전국	수도권	집중도(%)		
			2015년	2005년	1995년
인구	51,529	25,471	49.4%	48.1%	45.1%
전체사업체수	3,874,167	1,834,652	47.4%	46.6%	44.6%
취업자 수	20,889	10,744	51.4%	50.6%	49.0%
GRDP(경상)	1,565,248	772,958	49.4%	48.9%	48.2%
은행예금	1,163,727	805,287	69.2%	67.8%	64.8%
은행대출금	1,346,816	879,085	65.3%	66.7%	59.3%

주 : 구분별 통계 시점은 2015년 현재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의 합

#### 취약한 지역금융

- 지역내총생산(GRDP)로 측정된 경제력 집중도 보다 더 취약한 것이 금융의 수도권 집중도임
- 2015년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의 서울 및 인천, 경기도의 집중도는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지역금융의 취약성을 드러냄
- 지역금융의 취약성은 지역내 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고가 필요함

###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지역내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타 지역에서 소비되는 순유출 또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전국 16개 시도 거주자의 신용카드 지출구조를 분석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구, 인천, 부산의 거주자의 GRDP대비 역외 카드소비 비중은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 소비의 역외 순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비의 역외유출은 수도권에 포함된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에도 예외일수 없음

■ [표 2] 시도별 소비의 역외유출 비율 ■

순위	지역	순유출/GRDP(%)	순위	지역	순유출/GRDP(%)
1	대구	12.5	9	울산	6.0
2	인천	11.6	10	강원	5.9
3	부산	10.7	11	전남	5.9
4	광주	9.7	12	충북	5.6
5	대전	8.4	13	충남	4.7
6	경남	7.5	14	경북	2.9
7	전북	7.1	15	제주	2.0
8	경기	6.1	16	서울	-20.9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강원본부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과 지역내 재투자력을 저해하는 지역금융의 취약성, 그리고 지역에서 창출된 소비의 역외 유출은 지역경제의 피폐화를 불러오고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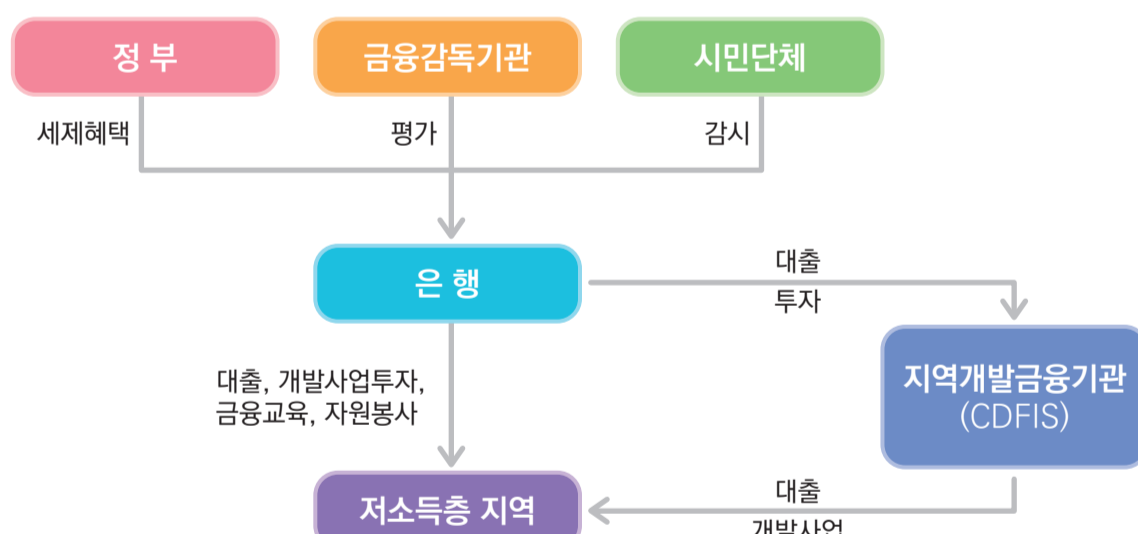
- 지역경제의 피폐화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미국 지역재투자법의 사례 및 시사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안의 하나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의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미 연방정부는 1977년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당해 지역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소기업 등의 대출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한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제정함

- 이에 따라 은행은 각 영업구역 내 모든 계층의 여신수 수요 등을 적절히 충족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됨
-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은 개별 금융기관의 지역 내 대출, 투자, 금융서비스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지점 설치, 본점 및 지점 이전, 합병 및 통합 등의 인허가 시 활용함



■ 미국 지역재투자(CRA)의 흐름도 ■

미국의 CRA제도가 금융기관의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증대에 기여했다고 하는 분석이 있는 반면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는 분석도 있어 제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편임

그러나, 제도도입으로 미국의 금융기관은 지역사회 발전의 파트너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본과 금융 전문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일정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면, 그 지역내에 반복적으로 재투자하는 힘인 “지역내 재투자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함

2008년 금융위기로 거의 미국 전역이 영향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 지역의 타격이 컸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재투자법이 가능하게 한 포용적 금융과 사회혁신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음

우리의 경우에도 저성장과 지역경제 피폐화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각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에 대한 신용제공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국내 은행들은 그동안 담보 위주의 보수적인 대출과 예대 마진에 의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대체수익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기울리 한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음

-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위치한 지역의 금융수요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동시에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투자 기회를 위한 포석으로 삼을 수도 있음

지역재투자법의 국내 도입 필요성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금융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함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은행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책임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지역재투자법 도입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함

- “포용적 금융”의 관점에서 지역의 금융 소외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